

(2) 무덤유적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인 지석묘는 전남지역에서 1만 6,000여 기 이상이 조사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이 구분되는 밀집분포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남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전남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영역 안에 무덤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혈연집단을 기반으로 한 곳에 계속적으로 지석묘를 축조하였다.

지석묘의 형식은 북방식·남방식·개석식으로 분류되며, 하부구조에 따라 세분하기도 한다. 북방식의 지석묘는 나주 만봉리·신평리·송촌리 등 영산강 유역에만 보이며 남방식과 개석식은 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묘실에서 석관형은 영산강 유역에, 석곽형은 보성강 유역과 남해안지역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세형동검편·석부·무문토기 등 출토되는 유물이 매우 빈약하고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에 반해 보성강 유역과 남해안지역은 비파형동검·동모·동촉 등 청동기류와 석검·석촉 등의 다양한 석기류, 곡옥·옥 등 장신구류 등 유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지석묘에서 부장품이 발견되고 있다.

지석묘를 축조할 수 있는 자연환경, 즉 지형적인 입지는 평지·구릉·산기슭·고갯마루 등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지석묘의 상석을 구하기 쉬운 산과 인접한 곳을 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고 평평한 구릉지대라도 채석하기 쉬운 산 인근이나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지석묘들이 분포되어 있다. 지석묘들은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정한 지역에 밀집되어 분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포양상은 전통성과 보수성이 강한 묘제인 지석묘를 그 집단의 묘제로 택하여 꾸준히 축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게는 10기 미만에서 많게는 20~30기를 한 곳에 조성하였다는 것은 혈연을 기반으로 한 집단의 묘역으로 조영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지석묘가 밀집분포된 지역은 주위 지형이 평지이고 일부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이 대부분이다. 이를 세분해서 보면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크게 구분되고 다시 해안지역은 해안분지와 만변분지로, 내륙지역은 구릉분지와 계곡분지로 세분할 수 있다.

해안지역은 해안변이나 만을 이룬 곳에서 2~5km쯤 들어간 분지형이며 영광 백수, 무안 일로, 해남 옥천, 광양 옥룡지역의 경우이다. 대부분 해안과 인접된 곳이라도 산을 등지고 있거나 산의 남쪽 지형을 택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하천이 흐르는 폭 1km에서 넓게는 3~4km의 평지가 전개되어 있는 분지이다. 최대 밀집지를 이룬 장흥 관산이나 고흥 동강지역은 보성만을 사이에 두고 해안변에 발달한 분지형 지형에 입지해 있으며, 여천 삼일지역의 경우 광양만 남안의 산기슭과 계곡 사이에 지석묘들이 분포하고 있다.

내륙지역인 영산강과 서해안변에 형성된 낮고 평평한 구릉이 있는 평야지대에서는 지석묘들이 강이나 하천변의 산과 인접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최대 밀집분포지를 이룬 나주 다시 지역은 영산강변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에 지석묘들이 밀집분포하고 있다. 함평·광주·담양 지역은 뚜렷하게 밀집된 양상을 보이지 않지만 넓은 평지가 전개된 산과 인접된 지역에 지석묘들이 분포하고 있다.

내륙의 산악지역인 보성강 유역에서는 남해안과 가까운 곳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 북쪽과 동쪽으로는 분포가 희박해지고 있다. 이곳은 산 사이의 계곡평지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데, 지석묘들은 비교적 넓은 분지형 평지가 있는 곳에 밀집분포하고 있다. 이 분지는 폭 500m 정도이지만 넓은 경우 1~2km 내외의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구례분지나 쌍암분지와 같은 곳에서는 지석묘들이 고립적으로 분포한다. 이처럼 지석묘 소밀집지역은 분지형 지형으로

10km²에서 20~30km² 정도의 범위를 가진 지형에 밀집분포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지석묘 축조집단들이 일정한 범위를 형성하면서 지역적인 영역권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전남지역의 지석묘 분포양상에서 대개 직경 4~6km 내외의 범위를 이루고 있는 소밀집지역은 86개이다. 3~6개의 소밀집지가 모여 하나의 밀집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밀집분포권을 이룬 지역의 범위는 직경 6~22km이며, 직경 18~22km가 주를 이룬다. 소밀집지역의 지석묘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개 1~2km이지만 독립적인 분포상을 보이는 곳들은 4~7km 정도이다. 소밀집지의 중심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7~13km이고, 독립적인 분포를 보이는 곳들은 10~13km 정도이다. 밀집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들의 중심지는 20~26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이 활동하였던 거리는 소밀집지의 경우 10km 내외로, 밀집분포권을 이룬 경우는 30~40km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지역 지석묘의 분포는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당시의 중심지역을 상정할 수 있다. 서해안지역에서는 전북 고창과 그 남쪽인 영광지역이 그 중심분포지이지만 밀집도가 희박한 편이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나주 다시와 왕곡 일대가 중심분포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곳은 영산강 유역의 중·하류지역에 해당된다. 그 상류지역에서는 희박한 분포를 보이지만 지류의 상류에서는 소밀집지를 이루고 있어, 영산강 유역의 하류지역에서 각 지류와 상류로 지석묘문화가 확산되어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해안과 보성강 유역에서는 더 뚜렷한 밀집상을 보이는데, 남해안지역은 보성만 서안인 장흥 관산과 안양 일대, 동안인 고흥 동강 일대, 그리고 광양만 남안 일대가 중심분포권을 이루고 있다. 보성강 유역은 보성만 쪽에서 보성강 상류로 전파된 것으로 상정된다. 이와 같은 지석묘문화의 확산과정은 먼저 해로를 통한 전파를 상정할 수 있고, 이들은 각각 해안변에서 독립적으로 지석묘를 축조하였다가 점차 내륙 쪽으로 확산되었다고 추정된다.

전남지역에 분포된 지석묘는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단정하기 어려우나, 마한사회가 지석묘사회에서 계승·발전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또 지석묘의 형식이 다양하고, 유물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집된 분포상황은, 전남지역이 우리나라 지석묘 연구에 중요한 지역임과 동시에 청동기 사회를 재조명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부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무덤유적은 지석묘뿐이다. 지석묘는 우리나라에서 전남지역에 가장 밀집분포되어 있으며, 또 가장 많이 발굴조사되었다. 전남지역에서도 동부지역에 더 밀집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굴조사되어 청동기시대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지석묘 발굴 중에서 송광면 우산리 내우는 한 군집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발굴조사였고, 청동기·옥·석검 등 다양한 유물이 부장품으로 발견되었다. 여수반도인 여천시 적량동에서는 비파형동검이, 평여동에서는 옥이 각각 중심 부장유물로 발굴되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지석묘에서 석검이나 석촉 등이 중심 부장품으로 발견된 것과는 매우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나라 지석묘 연구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 문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① 조례동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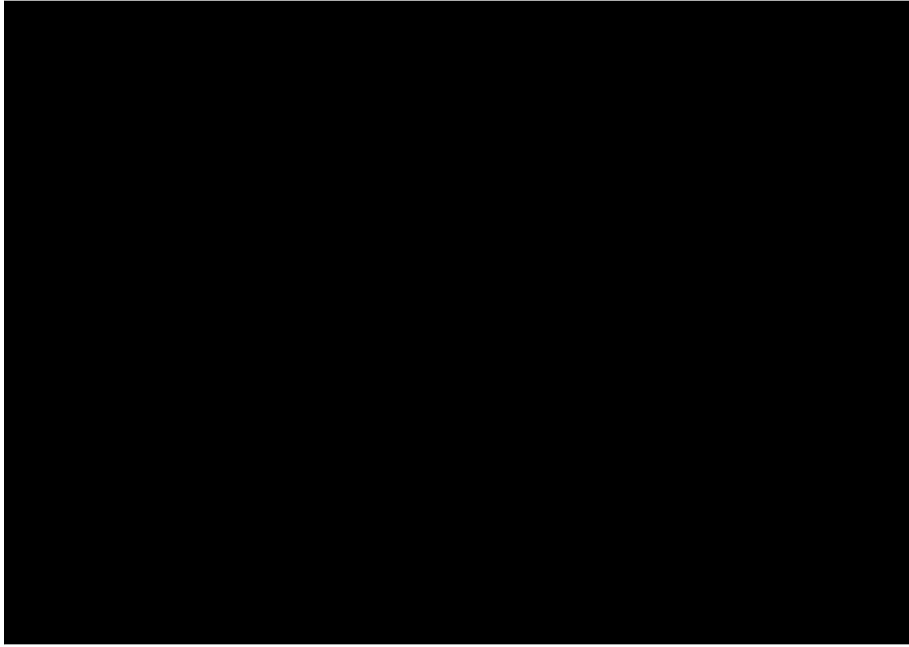
조례동 지석묘는 원래 10여 기가 분포하고 있었지만 택지조성사업으로 파괴·유실되어 2기만 조사되었다. 이 유적은 1995년 순천대박물관에서 조사한 것이다. 1호 지석묘는 동서 장축의 괴석형 상석으로 지석 2개가 고인 전형적인 남방식 지석묘이다. 석곽은 비교적 작은 할

석으로 축조한 것인데, 그 상면에는 할석으로 한 겹을 깔았다. 바닥은 맨바닥이다. 석곽 크기는 길이 1.64m, 폭 0.25~0.42m, 깊이 0.17~0.25m이다. 출토유물은 마제석검편과 석촉편이 각각 1점이다.

이 조례동 지석묘는 뚜렷한 석곽시설을 하지 않은 지석묘이며, 상석 밑에 할석을 한 겹 정도 깔 것은 무덤보다는 다른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한다. 무덤의 용도였다면 목관을 쓰지 않고 세골장과 같은 장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호의 지석 밑에 부장한 석검은 의례용 유물로 주목되는데, 이런 풍습은 전남 동부지역 지석묘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석검을 부장한 것은 동일한 문화에 속함을 말해준다.

② 송광면 우산리 내우 지석묘

송광면 우산리 내우마을에 있는 이 지석묘는 주암댐 수몰지역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1986년 전남대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였다. 내우 지석묘는 50여 기의 상석들이 산기슭에 형성된 평탄한 대지성 구릉에 남북으로 수열을 이루고 있다. 상석의 일부는 반파된 상태였으나 비교적 보존상태가



송광면 우산리 내우 지식묘 석실전경



송광면 우산리 내우 출토 석기류

좋은 편이었다. 석실은 석곽형이 39기, 토광형이 2기, 위석형이 5기, 상석 아래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이 6기, 그리고 상석이 없는 석곽형 6기 모두 58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석곽형의 석실에서만 출토되었으며, 부장유물은 21기의 석실에서 발견되어 다른 지석묘와 달리 부장풍습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출토된 유물은 석검이 17점, 석촉 24점, 삼각형 석도 1점, 돌끌 1점, 유구석부 1점, 환상석부편 1점, 비파형동검 2점, 곡옥 3점, 관옥 1점, 소옥 6점, 토제구슬 1점 모두 58점이며 이외에 무문토기편, 채문토기편, 홍도편 등이 있다. 이곳의 부장유물은 한 석실에서 한 점씩만 출토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8호에서는 비파형동검 1점, 곡옥 2점, 소옥 6점이 발견되었고 53호에서는 관옥과 유경유공식석검이 각각 출토되었다. 이는 비파형동검과 옥이 지석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우 지석묘는 석실수나 부장유물로 보아 청동기 전기 말에서 후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에 축조되었다고 짐작되며, 이 묘역의 피장자들은 석실구조나 방향에서 2~3기씩 쌍을 이룬 경우로 보아 혈연적으로 가까운 친족집단의 공동묘역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③ 황전면 대치리 지석묘

대치리 지석묘는 섬진강 하류의 지류인 황전천 유역으로, 대치마을의 계곡평지에 있다. 1990년 전남대박물관에서 조사하였으며, 7기의 지석묘와 상석이 없는 5기의 석실이 확인되었다. 석실은 활석이나 냇돌을 쌓은 석곽형이 주를 이루나, 7호 지석묘의 경우 석실이 없고 큰 활석이 상석 밑을 돌리고 있는 위석형 석실이다. 유물은 유병식석검 1점, 유경식석검 3점, 유경식석촉 1점, 돌끌 1점, 연석편 4점, 무문토기편과 주변에서 수습된 빗살무늬토기편 2점이다. 이 지석묘군에서는 석검을 토광과 벽석 사이에 부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④ 주암면 광천리·비룡리 지석묘

1991년 전남대박물관에서 광천리 5기, 비룡리 1기를 발굴하였다. 광천리 지석묘에서는 석곽 3기, 토광에 적석이 부가된 것 1기, 매장시설이 없는 것 1기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없다. 비룡리는 길이 298cm, 폭 280cm, 두께 240cm의 상석 밑에 대형 지석 5개와 직경 250cm의 범위에 판석이 깔려 있는 지석묘인데, 이런 유형의 지석묘는 제단이나 거석기념물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승주읍 평중리 평지 지석묘

평지저수지 바로 밑의 대지에 있던 지석묘인데, 1987년에 농지정리로 유실된 지석묘에서 나온 동검 1점과 석검 1점을 매장문화재로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에는 원래 10기의 지석묘가 동서방향으로 2열을 이루고 있었으나 파괴되어 유물이 출토된 유구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유병유절식석검과 세형동검에 가까운 동검 1점이다. 동검은 결입부(挾入部)가 뚜렷하지 않고 제2마디만 희미하게 나타나며, 등날이 없고 기저부(基底部)가 호를 이룬 점 등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세형동검의 초기 형식으로 보인다.